43. 김중만 "사람들에게 예술 소유의 기쁨 선물하고 싶어"

'1억원 사진' 작가의 작품을 1만원부터 판매하는 '아트 슈퍼마켓' 개최  
  
입장료는 전액 저소득층 눈수술 지원 사업에 기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만원짜리 작가가 뭐 어때서요. 여기 온 사람들의 90%는 아마 처음으로 예술 사진을 사봤을 겁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 사람들의 집에 걸리는 순간 1천만원짜리 작품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아트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진 작품 1만여장을 적게는 1만원, 많게는 200만~300만원대에 판매하는 전시회를 열어 화제를 모은 사진작가 김중만(62)은 12일 연합뉴스와 만나 "예술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나눔을 한번 실천해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문을 연 '아트 슈퍼마켓'은 별다른 홍보가 없었는데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입소문만으로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성황을 이뤘다.  
  
원래 총 8천여장 정도 내놓으려고 한 계획은 기대 이상의 인기에 1만여장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손익 분기점'인 6천여장 판매는 이미 전시 초반에 달성했다.  
  
다만, 작품 값이 싼 이유로 다 팔려도 큰 이익은 없다는 게 김중만 작가의 말이다.  
  
그는 "차라리 해외 나가서 작품 두세 점을 제값 받고 파는 것이 나한테는 이득"이라면서 "하지만 후배 작가들에게 이런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는 예술을 소유하는 기쁨을 선물했으니 이보다 만족스러운 일이 없다"고 말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벽면을 가득 메운 작품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만~3만원짜리다. '아트 슈퍼마켓'이라는 이름처럼 사람들은 입구에서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바로 떼어내 바구니에 담으면 된다.  
  
불과 석달 전 프랑스 파리에서 그의 사진이 1억원에 팔려나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이벤트다.

1억원을 주고 그의 작품을 산 컬렉터는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중만은 "작품이 1억원에 판매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축하는 의미로 뭔가 하고 싶었다. 그게 바로 '아트 슈퍼마켓'"이라며 "(1억원 주고 작품을 산) 그 컬렉터에게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했는데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나온 작품들은 그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작업한 2000년 이후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으로, 창고 4곳에 나눠 보관했던 것들이라고 김중만은 밝혔다.  
  
그는 "이렇게 많이 찍은 작가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창고에 보관하던 사진이라고 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김중만은 강조했다.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찍고 인화하고 다음날 다시 또 찍고 인화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이만큼이나 됐습니다. 행사를 위해 꺼내 보니 이런 사진을 왜 그냥 놔뒀나 싶게 아까운 것도 많더라고요."  
  
그는 1만원짜리나 1억원짜리나 산 사람에게는 똑같이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석달 넘게 공들여 사인했다고 말했다. 하루 200~300장씩 매일 밤 사인하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폐렴으로 병원 신세까지 졌다.  
  
그는 그러나 몸 상태가 조금만 나아졌다 싶으면 전시장에 나와 관람객들을 직접 맞이한다. '아트 슈퍼마켓'이라는 제목처럼 전시장 내부는 오래된 동네의 익숙한 슈퍼마켓 같은 분위기다.  
  
그는 "한 달 동안 제가 슈퍼마켓 주인"이라며 "손님들에게 사진 설명도 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사람들이 제 사진을 사들고 들떠 있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덩달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 사람은 예술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사진을 구매한 분들이 예쁜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두는 순간 비로소 그 사진은 하나의 작품이 된다. 예술가가 추구하는 진정한 나눔, 바로 기쁨을 나누는 것도 완성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트 슈퍼마켓'은 사진작가 김중만이 일반인을 위해 그의 재능을 기부하는 성격 외에 실제 기부 차원의 의미도 있다. 관람객 1인당 5천원의 입장료가 전액 고려대 안암병원에 기부되기 때문이다.  
  
입장료는 전액 김중만이 3년 전부터 이 병원과 손잡고 시작한 저소득층을 위한 안과 수술 사업인 '큐어 포 아이즈'(Cure for Eyes)에 사용된다.

그는 "입장료가 1천만원이 넘었다"면서 "몇백만원이 없어 평생 앞을 볼 수 없을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아마 한 7명은 수술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이는 그가 그동안 펼쳐온 자선 활동의 하나다. 대중에게는 그의 사진가로서의 명성이나 신문지상을 장식한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더 부각됐지만 그는 사진작업만큼이나 자선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촬영 갔다가 알게 된 에이즈에 걸린 소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본 것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아이들을 위한 축구 골대를 지어주는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캄보디아에는 미술학교를 세웠다. 고려대 병원에 기부한 금액도 1억원을 훌쩍 넘는다.  
  
'아트 슈퍼마켓'이 끝나는 대로 존폐 논란이 계속되는 세월호 교실을 사진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도 시작할 계획이다.  
  
김중만은 그러나 자신의 이런 활동에 대해 "아버지에 비하면 그림자도 못 따라갈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 고(故) 김정 박사는 1971년 정부 파견의사로 아프리카로 떠나 30여년을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현지에선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다.  
  
그는 "아버지는 이상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였다.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가 참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릴 때는 프랑스에 보내놓고 돈도 안 부쳐주는 부모님 원망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의 경험이 내 삶의 중심이 돼 나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그는 앞으로 더 활발히 사진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만원 주고 산 제 사진이 1천만원짜리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할 겁니다"라면서 각오를 다졌다.